

# 제1편

## '산수(山水)'의 고장, 단양 남한강변 드라이브

'산수(山水)'의 고장이라 불리는 단양

—  
단양은 80% 이상이 산으로 이뤄진 산악지형으로  
소백산을 중심으로 강원도 영월에서  
흘러 들어온 남한강이 굽이굽이 어우러지며  
절경을 만들어 낸다.  
59번 국도는 강변을 따라 함께 흐르며  
단양 구석구석으로 안내한다.

허준성 | 여행작가

단양 남한강변 드라이브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에서 시작해보자 \_\_\_\_ 단양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핫플레이스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학천봉 위에  
세워진 전망대에 길이가 15m가 넘는 스카이워크에서 남  
한강 변을 내려다볼 수 있다. 유리바닥 아래로 보이는 절  
벽이 심장을 쫓깃하게 만든다. 스릴도 스릴이지만, 단양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에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오  
고, 연신 카메라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스카  
이워크를 오른 후 내려갈 때는 단양강 위 1km를 나르는 '쥘  
와이어'나 매트를 타고 시속 30km로 내려오는 '슬라  
이드'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도 있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  
면 '단양강 잔도'를 걸어보는 것도 좋겠다. 스카이워크 주  
차장에 차를 두고 잠시 강변으로 걸어가면 나온다. 절벽  
을 따라 아슬아슬 구불구불 설치된 데크길이 나온다.



단양강 잔도



## 단양시내를 한눈에, 만천하 스카이워크

주소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94(주차장)



## 민물에서 모든 것을 모아놓은, 단양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차를 돌려 강변을 따라 단양 시내로 들어서면 단양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에 다다른다. 민물 아쿠아리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남한강의 명물 황쏘가리에서부터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대형 민물고기까지 국내외 234종의 민물고기 2만여 마리가 전시되어 있다. 민물고기 외에도 민물에서 서식하는 양서류, 파충류 및 수서곤충류까지 함께 있어 민물 생태 학습장으로 최고다. 650톤에 달하는 8미터 높이의 메인 수조는 바다 수조와는 또 다른 깊이감을 선사한다. 아쿠아리움 관람 동선 마지막에는 '뉘시박물관'도 함께 있다. 아주 오래전 사용되었던 뉘시 도구부터 최신 장비까지, 민물뉘시의 역사를 보여준다.





## 자연이 만든 지하 궁전, 고수동굴

주소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동굴길 8

동굴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사람이 지하수에 깎여 만들어진 동굴을 사암동굴이라고 한다. 파도에 오랜 시간 깎여 만들어지면 해식동굴이라고 하고, 용암이 흐르며 만든 것은 용암동굴이라고 한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방해석(CaCO<sub>3</sub>)이 약산성을 띄는 빗물과 지하수에 오랜 시간 천천히 녹으며 만들어지는 동굴을 석회암 동굴이라고 한다. 단양에 있는 동굴은 모두 석회암 동굴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서 주로 발견된다.

단양 일대는 고수동굴을 비롯해서 온달동굴, 노동동굴 등 여러 석회암동굴이 발견되었다.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퇴적된 석회암층에 200만 년 전부터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에 의해 종유석과 석순, 동굴 산호와 동굴 커튼이 만들어지며 거대한 지하 궁전을 만들었다. 시간이 빗어낸 아름다움에 연신 탄성이 이어진다. 총 길이 1.4km이며 천연기념물 제256호로 지정된 고수동굴은 국내 개방된 석회동굴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동굴은 일년내내 15도를 유지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날씨와 상관없이 관람할 수 있다.



## 단양팔경 중 가장 으뜸, 도담삼봉

주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83-3(주차장)

단양하면 누구나 처음 떠오르는 단어가 단연 '단양팔경' 일 것이다. 그 단양팔경 중에서도 풍경이 아름다워 제경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도담삼봉'이다.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도담삼봉은 재미있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가운데가 남편봉우리, 북쪽이 처봉 그리고 남쪽이 첩봉이라고 불리는데, 전설에 따르면 '남편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첩을 들이자 심통이 난 아내가 새침하게 돌아왔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알고 처봉을 보면 마치 남편봉을 등지고 앉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다. 처음 전설을 만들어 낸 사람의 상상력에 저절로 웃음 짓게 된다.

도담삼봉은 그 뛰어난 풍경 덕분에 조선시대 그림에도 자주 등장한다. 단양군수 출신 퇴계 이항,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도담삼봉이 등장한다.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한데, 도담삼봉을 좋아해서 자신의 호도 '삼봉'이라고 했을 정도.



## 고구려 문화와 생활상을 담은, 온달관광지

주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단양 여행의 마지막은 온달관광지로 정했다. 남한강을 따라 30분, 산수를 걷는길하며 느긋하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다. 단양 영춘면 일대는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 간 치열한 영토 전쟁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온달산성과 온달장군의 묘와 같은 문화유적을 기반으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녹여 관광지를 만들었다. 고구려 문화와 생활상을 담은 온달 전시관과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등 수많은 드라마의 세트가 되었던 온달 드라마 세트장이 관광지 내에 함께 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61호로 지정된 '온달동굴'이 볼만하다. 4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로 총 길이가 1.5km 이르며 종유석, 석순, 석주 발달이 뛰어나다. 단양 고수동굴에 비해 개방된 구간은 작지만, 넓었던 동굴이 낮아지기도 좁아 지기도 하며 탐험하는 듯하게 관람하는 동선이 더 큰 재미를 선사한다. 관광지 위편에는 온달장군의 설화가 전해지는 온달산성이 남아있다. 고구려에 처음 축조되어서 6세기 신라 때 다시 쌓았다고 전해진다. 왕복 40분 정도 걸린다. 🇰🇷



### 여행자가 허준성은?

한국여행자가협회 회원.

저자 허준성은 10년째 캠핑카를 끌고 전국을 누비며 여행을 하다가 제주도로 이주한 4년차 이주민이다.

국내외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자 잡지 기고와 단행본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저서로는 프렌즈 제주(2023), 대한민국 드라이브 가이드(2022), 대한민국 자동차 캠핑 가이드(2022) 등이 있다.